

# 11학년, 대입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2023학년도 미국 주요 대학의 정규 전형(레귤러) 합격자 발표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다. 이제 2024학년도 대입 원서 마감도 7개월 정도 남았다.

11학년 학생들은 지금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학교 성적도 올려야 하고 특별활동도 계속해야 한다. SAT, AP 시험을 보려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는 이처럼 바쁘게 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이 시기에 11학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지원할 대학을 좁혀서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할 것인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지원할 대학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구체적 윤곽이 잡혀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합격 전략을 짤 수 있다.

학생 자신의 능력 혹은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 없이 지원대학을 고르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로 돌아와 자신이 정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골라야 한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준비를 할 것들이 많다. 반면 중간



정도의 주립대학들은 학업 성적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학교 성적이 어떤가를 보고 지원 대학 수준을 생각해야 한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도 지난해처럼 SAT, ACT 시험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들이 매우 많다. Test Optional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SAT 점수가 확보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어느 대학에는 제출하는 것이 좋고, 어느 대학에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학마다 다르다.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SAT 점수만 갖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원하려는 대학과 GPA 점수와의 연관성을 갖고 결정을 해야 한다. GPA가 다소 낮더라도 높은 SAT 성적을 갖고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금은 학생의 학업적 성적을 기반으로 어느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과 갈 수 있는 대학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격차가 너무 크면 지원할 대학교 리스트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치되거나 근접해 있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입시 전략을 짜야 한다.

더불어 학비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워 재정보조/장학금이 필요하다면 대학 선택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제적인 여건이 대학 선택의 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지만, 재정보조를 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할 형편이라면 합격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사진=shutterstock

## UCLA 금년도 지원자 14만5,882명

캘리포니아 대학교 (UC)는 9개 캠퍼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2학년도 지원자 총수는 210,840명이었다. 금년도 UCLA는 145,882명이 지원을 해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서 주립학교 중 1위, 연구중심대학 중 20위를 차지한(UC버클리와 공동 1위) UCLA는 모든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대학으로 꼽힌다. 2023학년도 캘리포니아 주 내 거주자 예상 등록금은 \$13,225이며, 전체 학부생의 45%는 등록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밖 거주자 및 유학생 학비는 \$44,830다.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보다 3배나 더 비싸다.

2023학년도 입학 을 위해 UCLA에 접수된 145,882건의 신입생 지원서 중 62%인 90,747명이 캘리포니아주 거주 학생이었다. 이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UCLA 캠퍼스 로이스 홀, 사진=shutterstock

UCLA는 모든 UC 캠퍼스 중 캘리포니아주 거주자가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이다.

UCLA는 지난 수 년 동안 타주 및 해외 지원자도 급증했다. 2020학년도와 2021학년 도엔 각각 23,016,

33,383명이 지원해 45%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2학년도엔 34,627명으로 늘었다. 2023학년도의 타주 지원자는 33,066명이었다.

해외 지원자의 경우 2020학년도와 2022학년도 사이에 17,944명에서 23,608명으로 급증했다가 2023학년도의 경우 22,06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UCLA의 전체 지원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합격률은 놀랍게도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2학년도 합격률은 8.56%였다. 이는 아이비리그 대학 수준이다.

물론 합격률은 단과대학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 UCLA 간호대학의 2022학년도 합격률은 1%, 연극영화과 3%, 예술건축대학 5%, 헨리 사무엘리 공과대학 6%, 문과대 10%, 허브 알퍼트 음악대학 19%였다.

이처럼 단과대학들의 합격률은 전공에 따라 매우 차이가 난다. 따라서 무작정 원서를 넣기보다는 전략적 대학 선택과 지원이 중요하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30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Anthem AARP, Brand new, Central Health

###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샤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